

## 하용조 목사 시편 연구 4

(1996. 12. )

###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19편과 104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실하심을 공부하겠습니다. 천지창조, 즉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하면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창조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지식이 풍부하신지를 공부하면 내게 창조의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 창조의 능력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축복들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질병, 염려, 제한됨, 갈등이 사라집니다.

####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포하는 광활한 우주

먼저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어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하고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19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만큼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주인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주신 율법의 수여자이십니다. 이것이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 ‘하늘’은 영어로 복수를 의미합니다. 즉 ‘하늘들(heavens)’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을 단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의 하늘은 ‘하늘들’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늘의 끝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외에 또 다른 은하계가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은하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광활함은 인간의 지력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늘들이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수많은 별들이 하나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

1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장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말씀은 창조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창조는 어떤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해서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일회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3, 4 절을 보십시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 소리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소리가 없지만 다 통합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선교와 천국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어느 날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룬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말씀의 세계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소리 없는 소리가 그곳을 지배할 것입니다. 문법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번역과 통역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보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렇게 빛을 발할까요? 도대체 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해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유혹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 결코 버리지 않으서  
사람의 본분 :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두려

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택한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들에 핀 꽃 한송이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셨고 때에 따라 비를 주셔서 이름모를 꽃도 야산에서 피는데 네가 어찌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좀 더 잘 먹겠다고 사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염려의 보따리를 싸십시오. 다 던지십시오.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선언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을 믿고 곳곳이 가면 그 축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렇게 어둠에, 절망에, 좌절에, 쫓김에, 억울함에 시달렸지만 이 시편 기자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은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은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절망 중에 있지만 그런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꼭 붙잡고 갔더니 그를 높은 산의 사슴처럼 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위대한 강의를 할 수 있고,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으며,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술주정꾼이라고 해도 그것은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축복하십시오.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2~3년이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기도가 급한 사람은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순식간에 빛장이 풀어지고 나를 덮고 있던 막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걸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걸으십시오. 왕자와 공주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표정도 멋지게 지으십시오. 자신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십시오.

## 창조의 모습과 역할 보여주는 시편 104편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창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빛의 옷을 입으셨고 하늘에 휘장을 치셨습니다. 또 땅을 만들어 하나님이 든든히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6절에는 옷을 덮음 같이 땅을 물로 덮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이 산에서 흐르게 하셔서 골짜기를 만드시고 그 물을 들의 각 짐승이 마시게 하시고 새들이 깃들이며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으로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다고 했습니

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환경을 더럽히고 파괴해서 점점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요 인간이 한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인간은 환경을 파괴한 것입니다. 자연은 가만히 두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 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며 배고픈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와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잠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굴혈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람과 짐승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벌레까지 해야 할 일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게 이런 믿음이 없을 뿐이지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 주실 것입니다. 저의 짧은 목회생활을 통해 배운 것은 ‘포기하면 주신다’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님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가 성장시키려는 사람이 그 하나입니다. 자기가 잘 하려는 분들은 참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 포기합니다. 자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요구하지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활도 여기까지 가 보십시오. 내게 돈이 있지만 내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건강이 있지만 나의 건강으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이 있지만 내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낮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자라게 할 수 있다면 염려하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기도하십시오. 바뀌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모양은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코를 조금 더 높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

나님도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게으름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노동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청소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지 마십시오. 빨래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노동을 하십시오. 좀더 자자 좀더 늙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노동을 하십시오. 육신의 노동을 하면 정신적인 건강이 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뜻은 땅을 다 내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땅을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는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연을 잘 가꾸고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 하나님은 너무 멋쟁이십니다. 그런 예술가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고기를 예쁘게 만들고 그 바다 속에 산호나 바다 풀들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다 뜯어다가 자기 집 앞에 갖다놓고 고기를 잡아서 유리 속에 던져 넣고 봅니다. 자연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좋을 텐데 인간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돈벌이로 만들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소리를 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찬양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 찬양할 필요도 있습니다.

108편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깟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오리다', '내가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창조하신 세계를 묵상하리이다'라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 출처 : 온누리신문**